



더위 피해 새벽 방제 불 밝힌 농촌들

아간 조명장치를 부착한 농약 살포 차량이 18일 새벽 광주시 남구 대지동 들녘에서 어둠을 가르며 병충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농농협(조합장 전봉식)은 오는 30일까지 폭염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관내 논 200ha를 대상으로 공동 방제작업에 나섰다.

/*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하루 6만5000명 환승혜택 사라졌다

광주 시내버스 환승체계 개편 한달

승객 16% 운행간격 30분 이상 노선 이용 두번 환승 거의 못해...하차 단말기 불편도

#.광주시민 정모씨는 연일 35도가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4일 급남 59번 버스를 30분 넘게 기다린 끝에 겨우 탔다. 이 버스는 배차간격이 20분이지만, 무료 환승이 가능한 30분을 넘겨서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게 정씨의 하소연이다. 정씨는 사실상 요금 인상 효과를 노린 '꼼수'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김모씨는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환승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최근 급남로 4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송정공원에서 내렸다. 집

러가 있으므로 양해해 달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광주시가 시민의 환승 혜택을 넓히겠다며 개편한 '광주대중교통 환승제'가 오히려 하루 평균 6만5000여명의 무료 환승 권한을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에서 첫 하차 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내에 마을대로 무료 환승할 수 있도록 했다. 버스 이용객들은 하차기준으로 환승이 변경되면서 뒷문 앞에 새롭게 설치된 단말기에 카드를 찍고 내리는 불편도 겪게 됐다. 기존에는 처음 탄(첫 승차)후 1시간 이내에 횡수 제한 없이 환승이 가능했다.

특히 운행간격이 30분을 초과하는 시내버스 때문에 무료 환승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불편도 커지고 있다.

광주시가 현대산업정보연구원에 의뢰한 광주시내버스 운영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3일 기준으로 광주 시내버스 94개 노선 1일 이용객(승하차) 41만8618명 중 16%에 이르는 6만4752명이 운행간격이 30분 이상인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운행 간격이 30분 이상인 버스는 노선은 전체 노선의 39%(37개)에 이른다. 사실상 환승을 1번밖에 할 수 없는 운행 간격 15분~29분 노선도 39개(42%)로, 1일 평균 17만5817명(42%)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례 이상 환승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운행 간격 15분 이하 노선은 19%(18개)에 불과했고, 1일 이용 승객도 17만4271명으로 전체의 42%로 절반도 넘지 못했다.

결국, 시내버스 이용승객 중 58%가 긴 운행간격 때문에 겨우 1차례 환승이 가능하거나 아예 환승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버스 뒷문 계단은 2개 방향으로 내릴 수 있도록 분리돼 있는 반면 단말기는 한쪽에만 설치돼 있어 승객들이 한쪽로 서서 카드를 찍고 내리면서 하차가 지연되는 등 새 환승체계를 도입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시행 초기부터 제기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북한 청소년들 광주 온다

북한이 오는 22일 광주에서 개막하는 UNOSDP(유엔 스포츠개발 평화사무국)에 YLP(유스리더십 프로그램) 참가 명단을 통보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가 요청한 명단통보일을 두 차례나 넘기면서 불참이 예상됐던 북한은 개성공단 재개협상의 등 남북 화해 분위기에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 청소년의 참가가 이뤄지면 2008년 7월 중단됐던 남북스포츠 교류가 5년 만에 재개되는 데다 남북한 청소년의 첫 공식 만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시가 주력해온 2015년 광주세계유니버

인솔자 1명 등 총 4명 YLP 참가 명단 통보 U대회 단일팀 구성 탄력

시아드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2015년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의 최종 명단 통보 시한인 13일까지 답변이 없었던 북한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UNOSDP에 YLP 참가 명단을 통보했다. 참가인원은 청소년 3명, 인솔자 1명 등 총 4명이다. U대회 조직위는 UNOSDP로부

터 명단을 넘겨받아 통일부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북한 청소년이 YLP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정부 승인 등 각종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최종 명단통보일을 지난 9일로 한데 이어 13일까지 한 차례 연기했다.

U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요구한 명단제출일이 지나긴 했지만, 늦게라도(북한의) 명단 통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통일부와 협조 체계를 구성, 관련 절차 단축 등 만반의 준비를 해 놓은 상태"라면서 "북한 측의 행사 참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北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도 열자"

23일 이산가족 상봉 실무 접촉 제안 수용

북한이 18일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 제안에 이를 만에 수용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도 제안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오는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흠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진행하며 10~4선인 발표일에 즈음하여 화상상봉을 진행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무접촉 장소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관문점 내 남측 지역인 '평화회의의 집' 대신 금강산에서 하자고 수정 제의했다.

조평통은 "북남 적십자 실무회담

은 남측의 제안대로 23일에 개최하도록 하며 장소는 금강산으로 해 실무회담 기간 변화소도 돌아보고 현지에서 그 이용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라고 제안했다.

조평통은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실무회담을 개최하도록 한다"며 "실무회담 날짜는 22일로 하며 회담장소는 금강산으로 할 것을 제의한다"고 덧붙였다.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정부는 회담장소를 '금강산' 대신 당초 우리가 제안한 관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으로 하자고 거듭 제의했다.

/*연합뉴스

신성자동차㈜ www.g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전시장
The C-Class 36개월 무이자+주유비 지원 100만원
문의: 062)226-0001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 1주년 기념

● 세계사람 누구나
● 한번 와 보고 싶고
● 와서 살고 싶은 도시

세계로 웅비하는 4대미항 여수
YEOSU, Beautiful Gateway to the World & One of the World's Four Most Scenic Harbor Cities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도시
여수시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수시 야경, 진남관, 백도 비경, 금오도 비렁길, 향일암일출, 박람회장 빅오쇼

은화한 기후, 아름다운 해안
Cool Summer, Warm winter

★한국능률협회 선정 올 여름 호남 최고 휴가지 여수★